

내 마음 깨끗해야 광명 비취

堂)의 '뜻물 사(泗)'는 '낙 사(泗)'자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조사 가운데 서산 대사를 특히 존경한다는 거부 스님은 수행법 역시 서산 대사의 선교양종존(禪敎兩宗尊)의 가르침을 따른다. 거부 스님은 학인들을 가르칠 때도 철저히 선교겸수의 전통을 따랐다. 낮에 경전을 공부하고 율력을 하더라도 새벽이나 밤에는 반드시 일정 시간의 좌선을 하도록 가르쳤다. 아울러 스님은 성철 스님이 강조한 '단박 깨침' 즉 돈오(頓悟)보다는 차츰 공부해서 깨닫는 점오(漸悟)를 강조한다. 하루아침에 확철대오한 육조 혜능 선사와 같은 대근기가 아니라면 돈오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차근차근 성실하게 공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가귀감에 '고지학불자(古之學佛者)는 비불지언(非佛之言)이면 불언(不言)하고 비불지행(非佛之行)이면 불행(不行)이라'는 말이 나온다. 부처님의 언행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늘 부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온 거부 스님의 평상시 수행은 어떠한가. 경전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독송하는 일이 본업인 스님은 틈틈이 좌선하며 '이렇고?' 화두를 드는 이외에 포항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범어사에서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이틀에 한 번 금정산 정상을 등산했습니다. 수덕사에서 강주소임을 볼 때는 덕수산에 매일 2시간씩 올랐지요. 표충사 한주로 살 때나 여기 무이정사에 머물 때는 제약산(해발 1180m)의 사자평 갈대밭까지 매일 낮 2~3시간 정도 포항을 합니다.”

포항 중에는 <금강경>을 외우거나 주석을 한다. 수행자가 할 일 없이 등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부 스님은 포항 중에 대중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칠 때는 대중이 모두 편안하게 공부해서 인연의 사표가 되길 발원하곤 했다. 오랫동안 <금강경>을 독경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여쭙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재가자들이 수행의 체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수행의 경계는 스승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를 느끼거나 심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자량삼야 공개하면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렵습니다. 수행자에게는 꼭 필요한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수행의 과제에 충실함이고, 자기 일에 충실함이고, 묵언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 스님은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오가해(五家解)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하며, 재가자들이 동성상응(同聲相應)하고 동기상구(同氣相求)하는 도리 즉,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구하는 도리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낸 소리가 산울림이 돼 다시 돌아오듯이, 사회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뱀은 만든 자업자득이 돼 돌아오니,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이 돼야 합니다. 아보 선사는 '물 맑으면 구슬 빛이 나고, 구름 걷히면 달이 더욱 밝다(水澄珠瑩 雲散月明)'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즐겁고 깨끗해야 남에게 자비와 봉사와 같은 광명을



비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을 나타낸 계승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유명한 금강경 4구계 등이 있지만 스님은 의외로 말할 수 없다며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신다.

“경전에는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지대한 공덕이 있다고 설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부처님 말씀과 행동을 따라서 실천하는 공덕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거부 스님은 15년 여간 강원 교재를 직접 번역하고 주를 달아 책을 발간한 후 이를 전국 강원에 배포하는 불사를 쉬지 않고 해왔다. 당시에는 탄허 스님이 토를 탄 한문 경전이 주로 교재로 사용되었으나, 강원마다 교재가 다르고 책도 없어서 학인들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는 보살행을 남몰래 해왔다. 강의 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출판 비용을 직접 마련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사중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몇몇 신도들의 보시와 저비를 들여 출간한 책들의 무려 70%나 배포를 해왔더니 스님의 원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거부 스님이 강의와 번역, 책 배포 등을 한결 같이 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범어사 강원에서 공부할 당시 남몰래 법당에서 울린 서원 때문이라 한다. 스님은 강원엔 입학하지마자, 삼천배를 하며 남몰래 서원을 하게 된다.

“그날 밤 일불제자(一佛弟子)의 이념으로 도제양성(徒弟養成)을 서원하고 평생 공찰의 주지소임을 맡지 않는 등 맹세를 좇지 않고 상좌를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스님은 그날 밤 서원한 자신과의 약속을 한 시도 어긋 적이 없다. 절 주지를 맡을 기회도 있었고, 은사로 모시려는 후학들이 적지 않았지만 스님은 한사코 사양하고 강백(講伯)으로서의 외길만을 걷고 있다.

1996년 수덕사에 처음으로 강원을 개설할 때의 일이다. 1995년 강원을 개설해 달라는 수덕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인연 없는 곳이라 여겨 가지 않았다가 은사 도광 스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은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받은 거부 스님은 故 법장 스님이 주지로 재임하던 시절인 96년 2월부터 수덕사 학인스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하고 7월 1일 강원 개원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고전 번역자가 없어서 큰 일입니다. 번역도 포교라는 사명감으로 남이 손을 대기 힘든 경전과 어둠의 번역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현재 송광사판 <선가귀감>과 <경허집>을 번역 중인 거부 스님은 서산 대사의 <도가귀감>과 <유가귀감>도 번역할 예정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젊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부탁드리자, 거부 스님은 앞에서 한 이야기가 전부라며 부처님 닮아가는 삶을 살자고 거듭 당부한다.

“자연은 가식이 없어서, 농부가 키운 대로 보답을 해요. 자연과 더불어 육심 내지 않고 사는 것이 부처님 언행을 따르는 수행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됩시다.”

글·사진=김성우(작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9. 대만 불광산사 조실 성운 스님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江都)에서 태어난 성운 스님은 12세 때 의흥대학사에서 지계 법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41년 서하산(棲霞山)에서 비구계를 받고, 초산(焦山) 불산 불학원에서 수학한 뒤 인제종 제48대 법맥을 이어받았다. 호는 지개(志開), 법명은 오철(悟徹)이라 불렀다. 이는 뜻이 열리고, 깨달음이 철저하고, 지금 당장 깨달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스님은 1949년 대만으로 건너와 1950년 <인생월간>을 편집했다. 1952년 의관 뇌음사에 염불회, 흥법단 등을 조직하고 포교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1959년 대북 불교문화 북부처를 만들고, 불교서적 출판과 녹음테이프를 제작했다. 이처럼 성운 스님은 문화 사업에 일찍이 눈을 뜬 분이다.

(法力)을 쌓았다. 스님은 출가하면서부터 육자대명주 '옴마니반메훤'을 주로 외었다. 성운 스님은 “걸으면서 묵송하는 육자대명주가 산길을 홀로 걸을 때 용기를 가져다주곤 했다”고 한다. 나아가 들어서는 <유마경>과 <약사경>을 독송하면서 인간정토(人間淨土)의 청사진을 그렸다.



승 '행정승'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분별심은 성운 스님의 크나큰 발원을 알지 못하는 좁은 소견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만 신도들이 성운 스님을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존경하는 것은 스님의 깊은 수행력과 원력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불교의 생활화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과 불법이 여윌만한 신행을 말한다.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가는 생활이야말로 불자들의 이상이다. 대만의 성운 스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자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 대중과 함께 하는 교육을 펼쳐야 합니다. 과거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 부처님은 탁발을 하며 대중들과 늘 함께 했고 단 한 번도 사회와 격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 세

기독교세 강하던 대만서 50년 만에 인구 80% 불자로 포교

성운 스님은 1963년 고용 노동사를 창건하고, 1967년 불광산을 개산하면서부터 세계적인 고승으로 발돋움 했다. 스님은 1967년 고용현 대수향에 불광산을 세우고 불광정사(양로원), 대자유치원(고아원), 불교진료소 및 보문중·고 등을 설립해 인재양성과 복지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대만 국부기념관에서 1991년 불광협회를 창립해 세계 각지에 '인간불교 및 인간정토' 건설을 발원했다.

현재 스님은 4개의 종합대학(대한남화·불광대, 미국 서래대, 호주 남천대)과 13개의 불교대학, 불광 의료원, 22개의 도서관 등 단일사찰로는 세계 최대 포교 조직을 운영 중이다.

12세에 출가해 고통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 몸으로 불법을 체득해 온 스님은 진언, 염불, 좌선, 묵언, 간경 등 여러 수행방편을 걸림 없이 뒤야 남모르는 법력

<심경>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유(有)·무(無)를 초월한 법법을 즐겼다.

성운 스님의 제자는 200여 비구와 3000여 비구니가 있고, 재가법사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교육단체 중 부도위기에 처한 곳이 있으면 이를 인수해 불교사업도량으로 만들었다. 그곳에는 정년 퇴직한 불자 교육인을 투입해 불자들이 제2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

필자는 성운 스님의 제자 의인 스님이 동국대학에 유학하면서부터 성운 스님과도 인연이 됐다.

성운 스님은 기독교인이 대다수였던 대만에서 50여 년 만에 인구 80%가 불자일 정도로 기적 같은 포교 성과를 일궈낸 선지식이다. 그러나 소수의 불자들은 불광산사의 비약적인 성장에 성운 스님의 사상이나 수행력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스님을 '포교

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불법(佛法)이라도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불교, 세간 불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불교는 윤리를 비롯한 경제관을 강조하고 우리들의 정서 감정처리도 해결해 줍니다. 더불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는 사람들과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원해야 합니다.”

성운 스님은 법만 할 때면 보통 인생, 보통 사람을 향한 법문으로 인간정토에 보살사상을 결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를 주장했다.

“불교 흥포가 바로 수행이다. 불교는 기복적인 신행에서 실천 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성운 스님은 지금도 세계 100여 나라, 170개 협회의 불광회에서 모든 존재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연등 회전장치



SMD LED전구(국산정품)



SMD LED전구(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